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비용 부담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약품이 인체에 흡입되어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다른 어떠한 상품보다도 생산·유통·공급에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의 주제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입니다.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유통현황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 표준코드를 마련, 급여의약품 공급내역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선진화를 기대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필진으로 보건복지 가족부의 이수연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 이보연 센터장, 대한 약사회 하영환 상근이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전문이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남평오 상근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조운미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HIRA 연구'에서는 심평원에서 수행된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4년 청구액을 기준으로 500대 성분을 선정하고, 성분별 대표 제품에 대해 일대일 비교방법을 통해 외국 약가와 비교를 시도한 것입니다. 비교대상국은 호주, 스페인, 대만을 포함한 10개국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약가가 외국보다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을 다루었습니다.

'해외동향'은 전체의 주제와 관련하여 DUR의 개념과 주요 외국의 DUR제도를 고찰한 글과 보건의로 편익에 대한 가치화 방법 중 하나인 선택실험법에 대한 영국과 네팔의 사례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2006년 6월 PET 급여화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장비보유현황, 요양기관 종별 PET 검사 현황, 다빈도 상병별 PET 검사 건수 및 검사비 현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HIRA 정책동향'이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형선